

한국 축산물 위생 처리 협회

협회지 제 58-1호 2003년 3월 27일(목)

제목1: 도축장 20여곳 행정조치 불가피

- '위해요소중점관리' 의무적용 100일 앞으로 -

농림부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해 2000년 7월1일부터 도축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전국의 소·돼지·닭 도축장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전면 시행을 100여일 앞둔 현재까지 이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도축장이 많아 적용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국 도축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해본다

◆추진현황=2003년 3월 현재 전국 162개 도축장 가운데 59곳(오리 제외)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체로 인증을 받았다. 축종별로는 소·돼지 31곳, 돼지 11곳, 닭 17곳이다. 그러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도축장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인증을 신청한 도축장이 14곳, 시설보완 준비를 하고 있는 도축장은 68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올해 7월까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행정조치를 받는 도축장이 적어도 20곳을 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작업장은 과태료 및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같은 행정처분 대상업체들이 집단 반발을 일으키거나 의무적용 유예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99~2002년 103억여원의 도축장 시설지원 자금을 투입했고, 그동안 충분한 계도 및 홍보기간을 운영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수십개의 도축장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도축물량이 적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도축장이 대부분 영세하고 작업장 가동률도 낮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방침=농림부는 도축장의 효율성과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엄격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축산물 유통 혼란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축산물의 위생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원칙을 굳혔기 때문이다.

조정래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사무관은 "영세하고 비위생적인 도축장이 영업을 계속할 경우 축산물 소비자뿐 아니라 막대한 자금을 들여 위생시설을 갖춘 도축장도 피해를 입는다"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도축장 위생상태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생산을 위해 식품의 생산단계에서 위생에 해로운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집중관리하는 제도다.

유럽·일본 등 여러나라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축산물 수출입의 기본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축산물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축장을 비롯해 축산물가공장 등에 이같은 기준이 확대 적용되면서, 농림부는 1998년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제정·고시해 도축장의 경우 도축실적에 따라 2000년 7월1~2003년 7월1일 이 기준을 연차적으로 의무 적용토록 했다.

발췌: 농민신문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58-2호 2003년 3월 27일(목)

제목2: 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돼지콜레라 발병으로 돼지고기 수요 감소와 가격하락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백화점과 농협 등이 돼지고기 소비 캠페인에 적극 나섰다.

25일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4-6시 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전남도, 농협 전남지역본부, 양돈협회 도지부와 공동으로 돼지고기 소비확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관계 공무원과 농협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돼지콜레라는 인체에 무해합니다'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돼지고기 시식회 등을 갖는다. 또 행사장에는 '청정지역 전남지역 축산물은 안전하고 품질이 좋습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돼지콜레라의 인체 무해성 및 소비장려를 위한 홍보전단도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안심, 등심 등 수요가 적은 특수부위에 한해서 30% 할인 판매도 한다.

발췌: 연합뉴스

제목3: 2월 도축실적 전년대비 소 급감, 돼지 증가

2월 도축실적결과 소는 전월·전년대비 모두 큰폭으로 감소, 돼지는 전월대비는 감소 전년 대비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의 경우 총 3만1천869두가 도축됐으며 이 가운데 한우는 1만9천410두였으며, 유우 6천102두, 육우 6천357두로 각각 집계됐다. 한우의 경우 암소와 수소는 각각 9천638두, 9천772두가 도축돼 전월대비 각각 63.1%, 69.7% 감소했다. 전년대비로는 39.4%, 48.4% 각각 감소했다.

돼지는 총 117만7천307두가 도축됐으며 전월대비 15.7% 감소, 전년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돼지 도축실적은 지역별로 서울 4만4천88두, 경기 28만89두, 강원 6만2천343두, 충북 14만5천16두, 충남 9만1천257두, 전북 7만9천883두, 전남 6만2천347두, 경북 10만8천49두, 경남 15만3천241두, 제주 4만6천60두로 나타났다.

발췌: 한국정보문화

제목4: 경기농협, 도축세 폐지 추진

경기농협지역본부는 돼지콜레라와 축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도축세 납부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농협은 "지난해 구제역 발생과 최근 돼지콜레라 발병 등으로 경기도내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소득세를 부담하는 축산농가에게 도축세는 사실상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도축세 폐지를 국회에 청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축세는 소, 돼지를 도축할 때 시장·군수가 시중가의 1천분의 100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난해 전국 113개 도축장에서 490억원의 도축세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됐으며 경기지역에서는 90억원이 납부됐다.

발췌: 연합뉴스

TEL 031-391-9767,

FAX 031-395-6661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사)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 구좌 : 농협 군포 남지점 : 장환달 1104 - 02 - 043981